

반야심경 가르침, 생활에 있소이다



생활속 반야심경
김현준 지음
호림 | 6000원

포교지인 월간 <법공양> 8만부를 제작해 전국의 불자들은 물론 군법당 교도소 병원에 보내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이 <생활속의 반야심경>을 발간했다. 이 책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월간 <법공

1년간 월간 '법공양' 연재했던 '반야심경' 강설 엮어

양>에 연재한 <반야심경> 강설 내용을 엮은 것이다.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경전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모두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다. 김 원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 생활과 결부시켜 쉽고 명쾌하게 해석했다. 책에는 공의 의미,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해탈법,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 뜻,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생활, 결립없고 진실불허한 삶을 이루는 방법 등에 대해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 불교 교리인 오온 십이인연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 삼종반야 공가 중 삼제사상 등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우리는 원래 마하심 반야심 바라밀다심을 갖추고 있는데 원래가 마하오 반야오 바라

밀다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회복해 가지면 우리도 부처님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고무풍선과 같은 자아는 진짜 '나'가 아니라고 말한다. 본래 '나'는 고무풍선도 홀연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구름도 아니며, 허공이며 하늘이며 별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풍선이 터지면 '나'가 없기 때문.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가 없음을 깨달아 보는 것이 무아를 체득하는 길이라고 밝힌다. 김 원장은 독자들을 위해 반야심경을 독송해야 하는 이유와 독송법 및 당부의 말도 친절하게 덧붙이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서고 반야심경을 독송할때는 진실할 뿐 헛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라는 김 원장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이 <반야심경>을 설한 이유도 누구

든지 다 간직하고 있는 진실불허(眞實不虛)임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아의 고무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당부한다. 또 "오온개공(五蘊皆空)임을 관찰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도리를 깨달아 거짓자아를 온전히 비워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결코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괴롭던 것들이 갑자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 원장은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1975년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를 창립했다. 현재 월간 <법공양>과 도서출판 효림의 발행인 겸 대표로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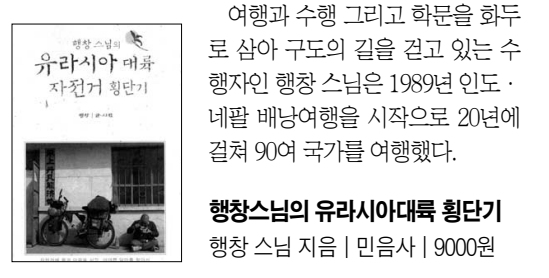


파미르 산맥을 넘고 있는 행창 스님의 모습.

떠나는 아쉬움 묻고 머나먼 유라시아로

"머물다가 떠나고, 떠난 속에 머무는 인생살이가 나는 좋다. 떠나는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발길 닿는 그곳. 그 순간에 존재할 인연들이 있는 곳으로... 이것이 진정한 여정이 아니겠는가?" 2001년 5월 1일,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인도학·티베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막 마친 행창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유라시아대륙 횡단을 나선다. 자전거 한대에 몸과 마음을 싣고 어여쁜 달마를 찾아 떠난 스님은 독일을 출발해 동화속의 왕국인 체코, 예술의 도시인 오스트리아 빈, 수난의 역사를 간직한 슬로바키아, 변천하는 역사를 알 수 있는 헝가리, 집시와 견공의 나라 루마니아를 거쳐 불가리아 항구도시 바르나까지 자전거 하나로 출발이다. 스님은 8월, 작열하는 태양빛아래 흑해연안에 입성한다. 수도 앙카라와 성모마리아 생각이 있는 셀주크를 둘러본 다음 10월에는 아랍의 도시인 그루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를 거쳐 석유와 전쟁하고 난민으로 가득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당도한다. 이어 카스피해를 건너 11월에는 중앙아시아 고령인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도 사르칸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횡단한 뒤 1월 24일 중국대륙으로 접어들다. 중국의 만리장성과 소림사, 위안과 시안을 돌아보고 베이징의 텐진항을 떠나 인천항에 2002년 5월 19일 서울에 입성하는 행창 스님. 스님은 꼭 1년동안 약 2만km의 거리를 횡단했다. 행창 스님의 유라시아 자전거 횡단 여정은 일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북타뉴스(www.buddhanews.com)에 74편이 연재되기도 했다.

여행과 수행 그리고 학문을 화두로 삼아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인 행창 스님은 1989년 인도·네팔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20년에 걸쳐 90여 국가를 여행했다. 행창스님의 유라시아대륙 횡단기 행창 스님 지음 | 민음사 | 9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민족사, 나무불 스님, 8500원
- 선학강좌 이문아침, 송산 행원 스님, 1만5000원
- 영혼의 모음 설타사, 범정 스님, 8500원
- 산은산 물은물이라도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불교가 좋다 동아사이, 기와이 하야오, 1만2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인·터·뷰

큰무당 김금화 실화소설 '계화' 떠난 이경자씨

“무속의 가치 알리는데 불교 도움 필요”

“불교는 한국의 전통신앙인 무속을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는 한국불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속은 폄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불교가 무속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드러내는데 힘을 주어야 합니다” 큰무당인 김금화(중요무형문화재 제82호)씨를 주인공으로 소설 <계화>를 떠난 중견작가 이경자씨의 말이다. 가톨릭 신자였던 이씨는 무속의 세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산 후 들을 신으로 생각했다. 25년간 10번이나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며 완성한 이 소설 <계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무속인으로서 꼽히는 큰만신 김금화의 굴곡진 삶의 면면과 무당으로서의 삶과 의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그 안에 뛰어들어 체험한 신명과 대동, 해원과 기쁨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다. 또 술한 곳 체험을 통해 관찰한 큰 무당, 갓 무당이 된 자, 무당이 되려는 자, 신이 내려 고통 받는 사람, 무당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 무당을 찾는 여자들, 무당을 연구하는 사람 등, 이들을 가지치기 하며 '신과 함께 춤추는 사람'인 무당의 속내와 그 의미를 세밀하게 그려낸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었던 무속(巫俗)의 정신(精神) 및 형식과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오랜시간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만큼 이씨는 이 소설에 대해 각별한 애

정이 있다고 했다.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무속인들이 다른 성직자들에 비해 유난히 차별받는 현실이 사무치도록 아팠다”고 자신의 감정을 피력했다. 이씨는 “책 발간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폄하되는 무속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이거나 무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씨는 “어느 종교나 사상가를 떠나 이 책을 읽고 인간적이고 생명적인 측면에서 무당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무속과 불교와의 깊은 관계만큼 불교계의 노력도 요청했다. 이씨는 “절에 가면 산신과 칠성각이 있으며, 서사 무가의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면 불교를 상위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등 무속은 불교와는 꽤나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씨는 “무속인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기존재가 폄하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속의 각종 불교를 수호하는 신인 제석천을 기리는 제석국이 가장 신경써서 올리는 중요한 곳이며, 엽불타령등을 봐도 불교와 밀접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 문제를 과감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절절하게 그려내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이경자씨는 1948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73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환인'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소설집으로 <절반의 실재>, 에세이집으로 <반쪽 어깨에 내리는 비>, <이경자, 모세 사회를 찾다>, <그 매듭은 누가 풀까>, <남자를 묻는다> 등 20여권의 저서가 있다. <사랑과 상처>로 제4회 한 무속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원우 기자

계화 이경자 지음 | 생각의 나무 | 9800원



부다가야 12년, 참 많은 분들이 향기로운 인연을 맺어 주셨습니다

새벽처럼 깨어 있소라
(혜초스님 지음, 값12,000원)
▶ 김동사 주지 혜초스님의 자비로움과 지혜가 곳곳에 묻어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온갖 고통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시원하게 씻겨 주는 이야기

죽음이 없는 樂
(정관산스님 지음, 값20,000원)
▶ 수십 년 간 수행정진하며 대승교에 힘쓰는 스님의 법문에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강조하며, 읽는 이를 위하여 바로 지금 발심하도록 '마음 공부하라'는 간절한 당부와 함께 나누어 살아가는 삶과 함께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 자세가 스며 있다.

묘법연화경
(석혜능 역음, 값30,000원)
▶ 정교한 퇴고작업 끝에 다시 태어난 설행서와 아름다운 묘법연화경. 원역한 글에서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풍부한 내용에서 오는 커다란 감동과의 만남

보현행원품강설
(혜남스님 지음, 값12,000원)
▶ 오랫동안 동국대, 해인사, 범주사, 통도사 등에서 후학들의 앙상에 힘써온 중산 혜남스님의 자상한 법문으로 스님의 밝은 해안에서 우리나라의 보현보살 신종대원의 이해를 통해 이 시대 불자 수행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발원문108선집
(덕진스님 역음, 값6,000원)
▶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수지 독송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끈기있게 생활 속의 근심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

묘법연화경 사경 중송본(계승) 1,2,3,4권
(혜능스님 역음, 각5,500원)
▶ "묘법연화경 중송본(계승)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 하더라도 묘법연화경 경전을 사경하거나 수지 독송 하는 것과 같은 공덕과 의의" 경전을 옮겨 쓰면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익혀 실천하는 것 또한 수행 방법의 하나.

남 잘되게 하기
(오심스님 지음, 값9,000원)
▶ 월봉사 주지 오심스님의 생활법문으로 삶의 희망과 올바른 생활을 향한 지혜를 안겨주며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이타행(利行)을 부르는 진리의 메시지

어린이 법요집
(대한불교어린이회지도자연합회, 값3,000원)
▶ 전통예법과 법의 색은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만든 법요집

법화경의 세계-믿음으로 깨어나기
(하라기와의아카라 지음 / 석혜능 옮김, 값10,000원)
▶ 엄격한 수행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믿음에 의하여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는 법화경 가르침의 맑은 기쁨과 법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번역한 책.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www.buddhagaya.co.kr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